

## 반파(伴跛)

○ 한자풀이 : “짝하여 기대서면 온전하게 서게된다.”

;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한 국명으로 주변소국(기문국 등)과의  
“연합과 소통, 결속”을 중시한 국호임, 지금의 장수군 이미지와  
비슷함

### ○ 문헌속 반파국 소개

- 양직공도 (520년경) : 백제사신도로 백제 주변의 속국을  
소개하며 2번째 소개한 소국이 반파임
- 
- 일본서기(720년경) : 반파를 임나(가야)의 소국으로 소개하며  
513년, 514년, 515년 3차례 소개됨

👉 일본서기 기사

- “봉화(봉수)”를 운영하고 일본에 대비하였고, 신라를 핍박하였다.

※ 역사고고학적으로 고대봉화터와 가야문화의 흔적이  
동시에 발견되는 곳은 장수지역일원이 유일하므로 고대  
“반파국”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